MACRO
VIEW

2026. 1. 16.

Global Macro Team

허진욱 Chief Economist
james_huh@samsung.com

정성태 Senior Economist
sungtai.chung@samsung.com

양지성 Economist
jisung.yang@samsung.com

금종호 Economist
jongho.keum@samsung.com

구민정 Economist
mj.gu@samsung.com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Week Ahead: 1월 셋째 주

Global Reflation Redu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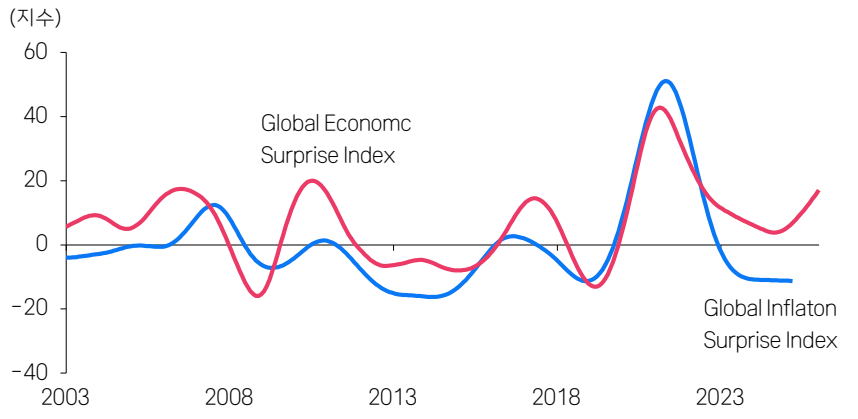
- 지난해 4Q 이후 선진국과 신흥국 전반에서 성장 전망은 개선된 반면 물가 전망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하락. 당사는 하반기 이후 리플레이션 리스크 우려
- 완화적 금융 여건, 확장 재정정책, 노동 공급의 축소 등은 리플레이션 환경을 조성한 요인. 이는 위험 자산에는 긍정적이나 장기 금리의 하방 경직성은 높일 전망

지난해 4Q 이후 글로벌 성장 전망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트럼프 고관세로 촉발된 불확실성의 완화, 각국 중앙은행의 잇따른 금리 인하와 그에 따른 금융 여건의 개선, AI 인프라 투자의 확대 등이 주된 요인이다. 이러한 성장 전망의 개선은 선진국과 신흥국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26년 1월 Consensus Economics의 집계에 따르면, '26년 선진국의 성장률 전망은 3개월 전에 비해 미국 0.5%p, 일본 0.2%p, 유로존 0.1%p, 한국 0.3%p씩 높아졌다. 신흥국에서는 중국이 0.3%p, 인도가 0.7%p, 베트남이 0.4%p 개선되었다. 당사도 지난 6일에는 중국, 9일에는 미국의 '26년 성장률 전망을 각각 0.3%p씩 상향한 바 있다. 이처럼 성장 전망이 높아졌지만, 물가 전망은 오히려 낮아지거나 상승 폭이 미미하다. '26년 일본, 유로존, 중국 등의 물가 전망은 3개월 전과 다르지 않았으며, 심지어 미국은-0.3%p, 인도는-0.7%p씩 낮아졌다. 반면, 물가 전망이 높아진 국가들은 한국(0.2%p), 캐나다(0.2%p) 등에 불과했다.

당사는 현재 금융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전망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우선, 성장은 기본적으로 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아래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장 전망의 개선은 9~12개월의 시차를 두고 물가 전망을 높이는 경향이 뚜렷하다. 통화 및 재정정책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정책 금리의 인하를 멈추고 동결할 전망이나, 각국의 금융 여건은 긴축이나 중립보다는 완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성장 전망의 개선은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 전망을 높이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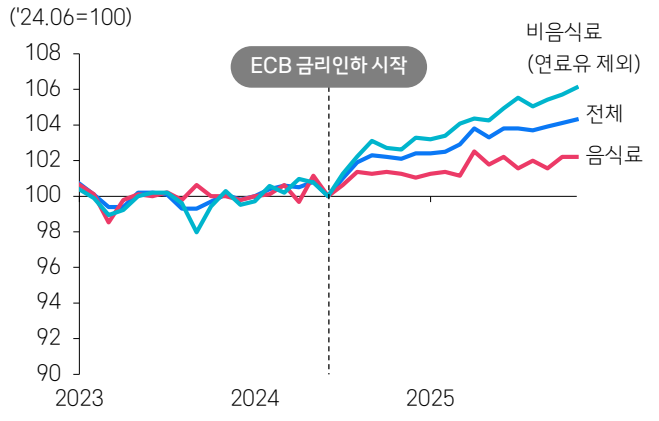


참고: HP filter로 추세 부분을 추출,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심지어 지난해 12월 정책 금리를 인하한 일본의 경우에도 실질 금리는 여전히 (-)이며, 엔화 약세로 인해 금융 여건은 악화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완화된 금융 여건이 수요의 개선과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유로존이다. '22년부터 내내 지지부진하던 EU 27개국의 실질 소매판매는 ECB가 금리 인하를 시작한 '24년 6월부터 개선되기 시작했으며, 줄곧 둔화되던 해당 지역의 핵심물가(에너지와 식료품 제외)는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25년 6월부터 완만하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경우에도 팬데믹 이후 부진했던 소비가 '24년 중반 이후 내구재를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되면서, BOJ의 기조적인 인플레이션(underlying inflation) 추정치도 상승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주요국의 재정정책도 수요 확대와 리플레이션 요인이다. OBBA(One beautiful Bill Act)로 '26년 미국의 재정 impulse는 GDP의 +0.5% 내외로 높아지고, 독일에서는 지난해 재정준칙의 수정의 영향이 '26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책임 있는 적극적 재정을 주요 정책 기조로 내세웠으며, 실제로 '25년말 GDP의 2% 수준의 추경을 확정했다. '26년에도 다카이치 총리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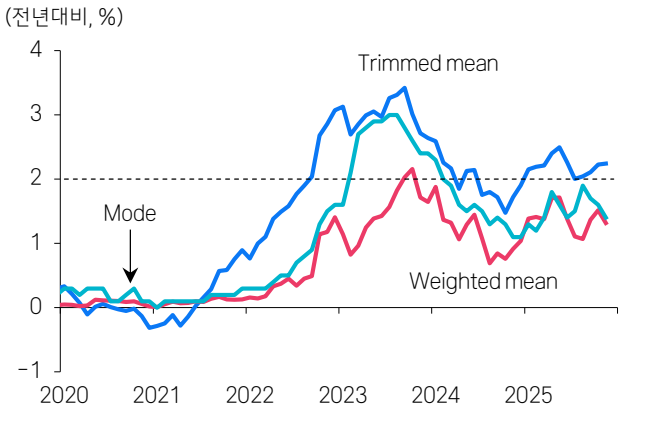
수요의 개선 외에 노동과 투자 측면에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잠복하고 있다. 올해 내내 주거비(shelter) 상승률의 둔화로 물가 상승률이 완만하게 하락할 전망인 미국의 경우에도, 트럼프 집권 이후 시행된 강력한 反이민 조치가 견고한 서비스 소비와 맞물리면서 개인 서비스, 외식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최근 들어 불확실성의 완화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채용을 증가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NFIB의 Hiring Plan 지수의 상승: '25년 5월 12% → 12월 17%). 노동 공급 축소가 수요 확대와 맞물리면서 임금 상승률이 재차 상승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일본과 영국에서도 인구 구조의 변화나 이민자 급감에 따른 노동 공급의 축소가 임금 및 물가 상승 압력을 초래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6년 이후 대두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난해 5.25%를 기록했던 춘투(春鬪) 임금 상승률이 올해도 높을 것으로 BOJ는 진단한 바 있다(12월 BOJ 금융정책결정회의). 영국의 경우에도 정책 금리가 3.75%로 주요국 대비 가장 높으나 물가 상승률은 '25년 3.4%, '26년에도 2.4%에 달할 전망이다. 브렉시트와 영국 내 反이민 정책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이 주된 요인이다. 반면, 유로존은 이민자 유입이 증가하면서, 노동시장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은 낮은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라가르드 ECB 총재도 지난해 잭슨홀(Jackson Hole) 회의에서 이민자들의 기여가 없었다면 유로존은 노동시장은 훨씬 더 빠듯하고, 산출도 감소했을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ECB 금리 인하 이후 EU 지역 소매판매 빠르게 개선



자료: Eurostat, 삼성증권

BOJ의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 추정치 상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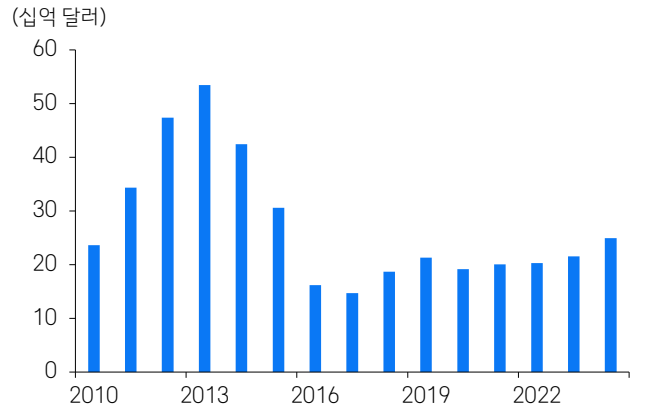
자료: Bank Of Japan, 삼성증권

투자 측면에서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나타난 상품(Goods) 수요의 급증과 이후의 둔화, 노동력 부족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의 지연, 트럼프 당선 이후의 높아진 불확실성 등은 투자의사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인 사례가 구리 가격의 급등이다. 5대 글로벌 광산 기업들의 생산설비 투자는 명목 기준으로는 '16년 이후 늘어났으나, 그간의 물가 및 임금 상승을 감안한 실질 투자 금액은 거의 10년 가까이 정체했다. 반도체의 경우에도 '21~22년의 호황과 '23년의 업황의 급격한 악화는 투자와 수요의 엇박자로 이어졌고, 이후 AI 인프라 투자의 급증과 맞물리면서 반도체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작용 중이다. 그에 따라 84년 이후 줄곧 하락했던 미국의 정보기기 투자 물가 지수는 23년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반도체 공급난은 컴퓨터, 휴대폰 등의 가격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투자 측면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현재까지는 일부 산업에 국한되는 현상이다. 이는 중국의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제조업 공급 과잉 때문이다. 23년 이후 중국의 생산자 물가와 수입 물기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가격이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중국 정부가 반내권화(反內眷化) 정책을 언급한 이후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특히 제조업 투자가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올해 들어서는 철강, 전기차 등의 수출허가제를 실시하고 수출에 대한 증치세 환급율을 축소한 바 있다. 당분간은 공급 과잉으로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나, 점차 그 효과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시장 관점에서 성장 전망의 개선에 따른 리플레이션은 낮은 수준에서 물가가 상승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험자산에 긍정적인 환경으로 작용하나, 채권시장에는 부정적일 전망이다. 과거 미국 사례를 보더라도 '00~09년 리플레이션 당시 주가와 채권의 수익률은 (-)의 관계를 보인 바 있다. 특히, 선진국을 비롯한 각국의 장기국채 금리는 역사적으로 동행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 그에 따라 성장 및 리플레이션과 각국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맞물리면서 장기국채 금리는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일 전망이다. 덧붙여, 지난주 Week Ahead에서 언급했듯이 차기 연준의장 임명을 둘러싼 Fed의 독립성 논란까지 맞물릴 경우에는 장기 금리의 상방 압력은 더욱 높아질 개연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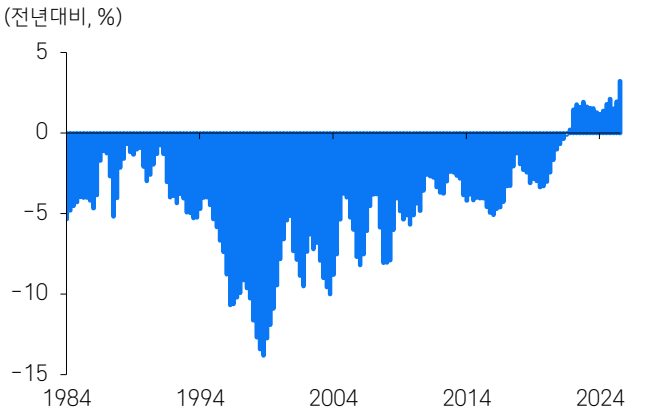
(정성태)

'10년 이후 글로벌 광산 기업의 생산설비 투자 추이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줄곧 하락했던 미국의 IT 투자재 물가 지수 최근 상승세 지속



자료: BEA, 삼성증권

Preview

주요 지역별 정책 및 경제 지표 Preview

미국: 다음 주에는 11월 PCE 물가지표(22일)와 1월 S&P Global PMI(23일)가 발표될 예정이다. 11월 PCE 물가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물가 관련 지표 전반이 예상을 하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11월 PCE 물가 데이터가 Fed의 긴축 우려를 환기시킬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다만, 최근 미국의 서비스 소비 확대와 노동 공급 축소로 서비스 물가 하방 경직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 1월 종합 PMI는 12월(52.7) 대비 소폭 상승한 52.9를 기록할 전망이다. 최근 소매판매의 전반적인 증가에서도 나타나듯, 미국 경기는 양호한 개선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럽: 다음 주에는 1월 유로존 및 주요국 PMI(23일)가 발표 예정이다. 1월 유로존 종합 PMI는 52를 기록해 12월(51.5) 대비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4분기 이후, 유로존 전반의 대출/소비/생산 데이터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어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의 개선세가 이어질 경우 2026년 유로존 성장 전망은 잠재성장률(1.1%)을 유의미하게 상회하는 1.4% 수준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당사는 독일의 재정 확대가 본격화되면서 유로존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2027년까지 유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중국: 다음 주에는 4분기 GDP와 12월 경제 지표가 발표(19일)될 예정이다. '25년 4분기 GDP는 전년 대비 4.4%로 3분기보다 둔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 10월과 11월 주요 경제 지표는 부진했으며, '24년 4분기 부양책 강화에 따른 기저 효과도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이다. 한편, 12월 주요 경제 지표는 산업생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부진할 전망이다. 12월 산업생산은 12월 수출 실적 호조를 감안하면 양호한 수준(전년 대비 5.0%)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고정자산 투자는 큰 폭의 부동산 투자 감소(-16.5% 전망)가 이어지면서 -3.1%를 기록하고, 소매판매도 이구환신 효과 감소로 1.1%에 그칠 것이다. 다만, 서비스 등 중국 통계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추정하며, 중국 경기는 지표 상만큼 부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일본: 다음 주에는 1월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23일)가 예정되어 있다. 일본은행은 정책 금리를 동결하고, 전망에 부합하는 경제 상황 지속 시 금리를 인상한다는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최근 일본은행의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 추정은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이번 춘투에서도 '25년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 인상이 예상된다.

한국: 다음 주에는 4Q GDP(22일)가 예정되어 있다. 당사는 한국의 4Q GDP를 전기 대비 0.2%(전년 대비 1.8%), 연간으로는 1.1%로 예상한다. 전기 대비 4Q 성장률은 3Q(1.3%)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나, 이는 정책 및 소비 심리 개선에 따른 소비의 빠른 회복세가 사라진 영향에 불과하다. 다만, 반도체를 제외한 산업생산은 저조한 편이고, 건설투자는 주택 투자를 중심으로 부진할 것이다. 반면, '26년 한국 경제는 반도체 수출의 확대와 그에 따른 설비 투자 회복, 건설 투자의 완만한 회복세, 소비의 정상화 등의 요인으로 2.2% 성장할 전망이다.

금융시장 Preview

글로벌 금융시장: 지난해 이후 4Q 이후 선진국과 신흥국 전반에서 성장 전망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트럼프 고관세로 촉발된 불확실성의 개선, 각국 중앙은행의 잇따른 금리 인하와 그에 따른 금융 여건의 개선, AI 인프라 투자의 확대 등이 주된 요인이다. 그렇지만 물가 전망은 오히려 낮아지거나 상승 폭이 미미하다. '26년 일본, 유로존, 중국 등의 물가 전망은 3개월 전과 다르지 않았으며, 심지어 미국은-0.3%p, 인도는-0.7%p씩 낮아졌다.

당사는 현재 금융시장이 리플레이션 리스크를 간과하고 있으며,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전망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우선, 성장은 기본적으로 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성장 전망의 개선은 9~12개월의 시차를 두고 물가 전망을 높이는 경향이 뚜렷하다. 통화 및 재정정책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국이 정책 금리를 동결했으나, 금융 여건은 여전히 완화적이다. 미국의 OBBA, 독일의 재정준칙 수정, 일본의 책임 있는 적극적 재정정책 등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미국, 영국, 일본 등은 反이민 정책이나 인구 구조의 변화로 임금 상승률이 높아질 개연성이 높다. 투자 측면에서는 구리, 반도체 등이 가격 상승은 팬데믹 이후의 각종 불확실성이 초래한 투자와 수요의 엇박자에 기인하며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제조업 전반의 물가 상승 압력 상승을 당분간 예상하기 어렵다. 단, 중국 정부의 反내권화 정책 이후의 제조업 투자 급감, 수출허가제 등을 감안할 때,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효과는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시장 관점에서 성장 전망의 개선에 따른 리플레이션은 낮은 수준에서 물가가 상승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험자산에 긍정적인 환경으로 작용하나, 채권시장에는 다소 부정적일 전망이다. 특히, 선진국을 비롯한 각국의 장기국채 금리는 역사적으로 동행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 그에 따라 성장 및 리플레이션과 각국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맞물리면서 장기국채 금리는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일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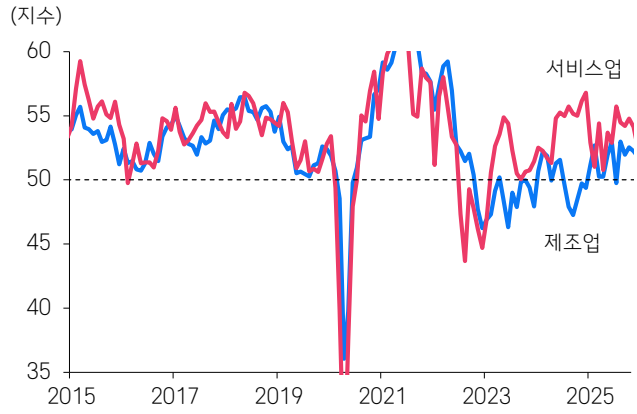
Macro Events: Week Ahead

지역	날짜	지표명	단위	컨센서스	전기	영향	비고
정책 지표							
일본	1월 23일	1월 BOJ 금융정책결정위원회 회의	-	-	-	-	• 기준 금리 0.75%로 동결 전망
경제 지표							
미국	1월 22일	11월 개인소비	전월 대비	0.5%	-	상	
		11월 PCE 물가	전월 대비	0.2%	-	상	• Fed의 긴축 우려를 환기시킬 가능성은 제한적
		11월 핵심 PCE 물가	전월 대비	0.2%	-	상	
	1월 23일	1월 S&P Global 제조업 PMI	지수	52.0	51.8	상	
		1월 S&P Global 서비스업 PMI	지수	52.8	52.5	상	
유로존	1월 23일	1월 소비자 신뢰지수	지수	-	-13.1	중	
		1월 S&P Global 제조업 PMI	지수	-	48.8	상	• 12월(51.5) 대비 반등할 것으로 예상
		1월 S&P Global 서비스업 PMI	지수	-	52.4	상	
독일	1월 20일	1월 ZEW 전망 지수	지수	-	45.8	중	
		1월 ZEW 동향 지수	지수	-	-81.0	중	
	1월 23일	1월 S&P Global 서비스업 PMI	지수	-	52.7	상	
		1월 S&P Global 제조업 PMI	지수	-	47.0	상	
중국	1월 19일	4분기 GDP	전년 대비	4.5%	4.8%	상	• 10월, 11월 주요 경제 지표는 부진으로 둔화 전망
		12월 소매판매	전년 대비	1.1%	1.3%	상	• 이구환신 효과 감소로 둔화 예상
		12월 산업생산	전년 대비	5.0%	4.8%	상	
		12월 고정자산 투자(누적)	전년 대비	-3.1%	-2.6%	상	
일본	1월 23일	12월 소비자 물가	전년 대비	2.2%	2.9%	상	
한국	1월 22일	4분기 GDP	전년 대비	-	1.8%	상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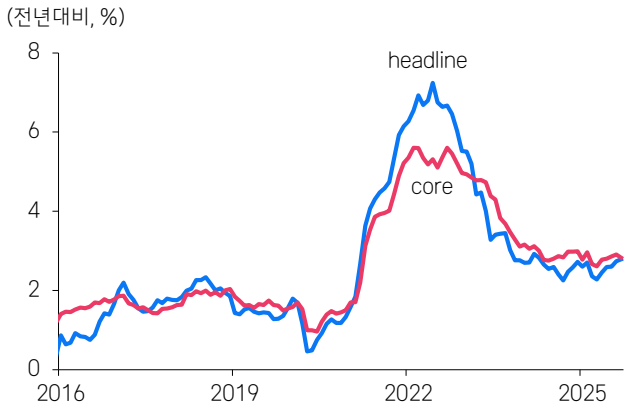
〉〉 차주 발표 예정인 주요 경제 지표

S&P Global 미국 PMI: 제조업 vs. 서비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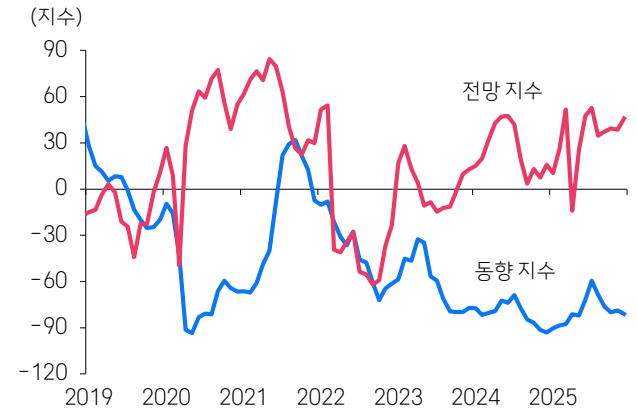
자료: S&P Global

미국 PCE 물가: headline vs. 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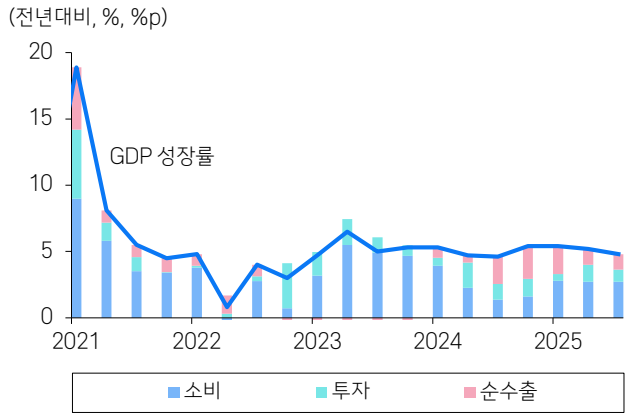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독일 ZEW 동향, 전망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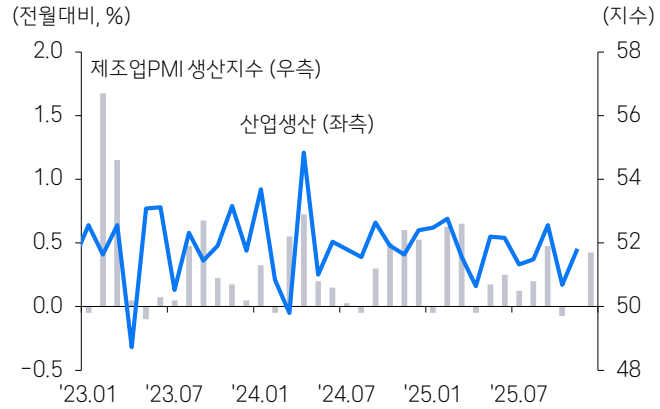
자료: ZEW

중국 GDP 성장률 및 성장 기여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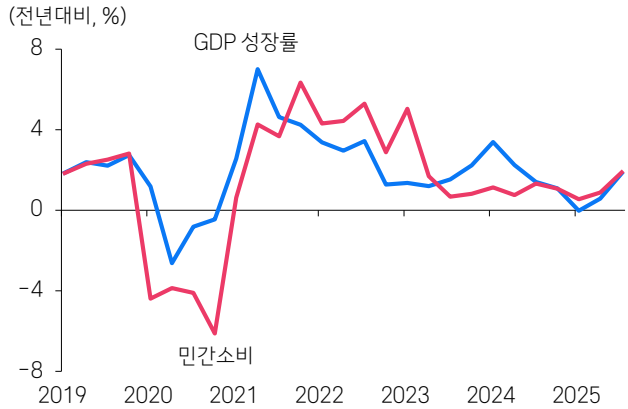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삼성증권

중국 산업생산 vs. 제조업 PMI 생산 지수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삼성증권

한국 GDP 및 민간 소비 추이



자료: 한국은행

Review

주요 Event와 시사점

미국: 이번 주에는 12월 소비자 물가(13일)가 발표되었다.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2.7%, 핵심물가는 2.6% 를 기록했으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핵심 상품 물가는 전년 대비 1.4%로 11월과 같은 수준이었으며 핵심 서비스 물가(에너지 제외)는 3.0%로 11월과 같았다. 주거비 제외 서비스는 2.9%로 11월의 3.0%에 비해 다소 낮아졌으나, 개인 서비스(3.7%), 외식물가(4.1%), 의료비(3.2%) 등은 확대되었다. 종합하면, 상반기 미국 소비자 물가는 관세 효과, 전력 요금 상승 등이 주거비 부문의 디스인플레이션을 상쇄할 전망이다. 다만, 하반기부터 노동시장의 둔화와 주거비 상승세 약화 효과가 우세해지면서, 물가 상승률은 점차 연준의 목표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 이번 주에는 11월 유로존 산업생산(15일)이 발표되었다. 유로존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7%, 전년 대비 2.5%를 기록해 시장예상(각각 0.5%와 2.0%)을 상회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로 보면, 컴퓨터 및 전자기기(+6.9%), 음식료 외 소비재(+4.4%) 등의 품목이 두드러졌다. 반면, 내구소비재(-2.2%), 화학제품(-3.4%), 가죽제품(-2.8%) 등은 부진을 이어갔다. 품목 별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인 생산은 2023년 상반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회복했다.

중국: 이번 주에는 12월 수출입(14일)과 12월 통화신용 지표(15일)가 발표되었다. 12월 수출은 전년 대비 6.6%로 11월 실적(5.9%)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3.1%, Bloomberg 기준)을 상회했다. 이는 중국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한다는 당사 전망과 일치한다. 한편, 증가 폭이 확대된 것은 글로벌 반도체 호황에 따라 반도체 수출이 증가(47.7%, 이하 전년 대비)하고, 전기차 수출 허가제에 앞서 자동차 수출(71.7%) 앞당겨진 영향으로 추정한다. 아울러, 12월 수입도 전년 대비 5.2%로 시장 예상(0.9%)을 상회했다. 주로 원유(4.8%), 천연가스(-0.2%) 등 에너지 수입의 감소 폭이 축소되고, 반도체 수입 증가(16.6%)가 확대된 영향이다. 따라서, 12월 수입이 예상보다 높은 것을 내수 개선의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12월 총사회융자(잔액 기준)은 전년 대비 8.3%로 완만한 둔화세를 이어갔다. 이는 지난 '24년 9월 부양책의 영향으로 기저 효과가 나타나면서 정부 채권 발행 증가율이 낮아진 영향이며, 정부 채권 발행을 제외한 민간 부문은 6% 내외를 유지했다. 다만, 위안화 대출의 경우, 가계 대출 부진으로 둔화가 이어졌다. 한편, M2는 가계 예금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8.5%를 기록했다.

한국: 이번 주에는 1월 금통위(15일)가 있었다.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 금리는 만장일치로 동결(2.5%)되었다. 또한,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위원도 지난 11월의 3명에서 1명으로 줄었고, 통화정책 방향문에서도 기준 금리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그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를 시사한 것으로 판단하며, 올해 기준 금리를 동결한다는 당사 전망을 유지한다. 한편, 이창용 총재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며 정상화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고, 원화 환율은 펀더멘털과 괴리가 있다는 의견을 견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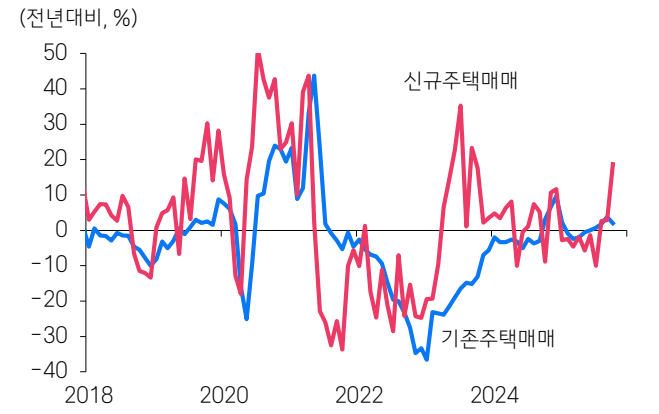
Macro Events: Week Review

지역	날짜	지표명	단위	컨센서스	실제치	전기	예상 대비	비고
정책 지표								
한국	1월 15일	1월 금통위	-	-	-	-	-	• 기준 금리 2.5%로 동결
경제 지표								
미국	1월 13일	12월 NFIB 소기업낙관 지수	지수	99.2	99.5	99.0	Above	
		12월 CPI	전월 대비	0.3%	0.3%	-	In-line	• 주거비 부문의 디스인플레를 상쇄할 전망
	1월 14일	10월 신규주택판매	전월 대비	-10.6%	-0.1%	3.8%	Above	
		9월 신규주택판매	전월 대비	-	3.8%	11.3%	-	
		11월 소매판매	전월 대비	0.5%	0.6%	-0.1%	Above	
		10월 PPI	전월 대비	0.1%	0.1%	0.6%	In-line	
		11월 PPI	전월 대비	0.2%	0.2%	0.1%	In-line	
	1월 15일	12월 기존주택 판매	전월 대비	2.2%	5.1%	0.7%	Above	
	1월 17일	1월 NAHB 주택시장 지수	지수	40.0	-	39.0	-	
유로존	1월 12일	1월 Sentix 투자자신뢰 지수	지수	-5.0	-1.8	-6.2	Above	
	1월 15일	11월 산업생산	전월 대비	0.5%	0.7%	0.7%	Above	• 2023년 상반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회복
중국	1월 14일	12월 수출	전년 대비	3.1%	6.6%	5.9%	Above	• 글로벌 반도체 호황으로 반도체 수출 증가
		12월 수입	전년 대비	0.9%	5.7%	1.9%	Above	
	1월 15일	12월 총 사회융자 규모(누적)	십억 위안	35,295.0	35,600.0	33,390.3	Above	
		12월 신규 위안화대출(누적)	십억 위안	16,161.7	16,270.0	15,361.6	Above	
		12월 M2	전년 대비	8.0%	8.5%	8.0%	Above	
일본	1월 15일	12월 생산자 물가	전년 대비	2.4%	2.4%	2.7%	In-lin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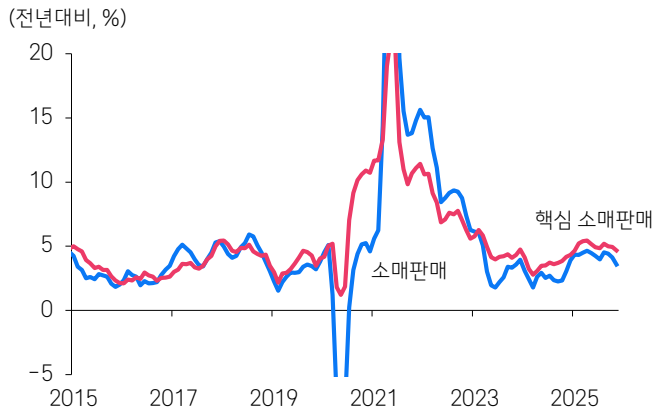
〉〉 금주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

기존주택 매매 vs 신규주택 매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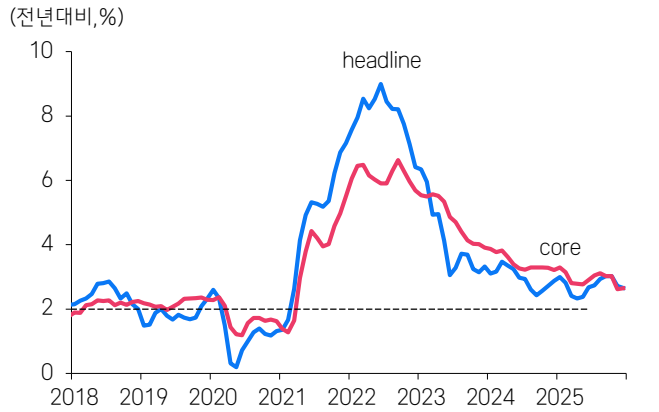
자료: U.S. Census Bureau

미국 전체 및 핵심 소매판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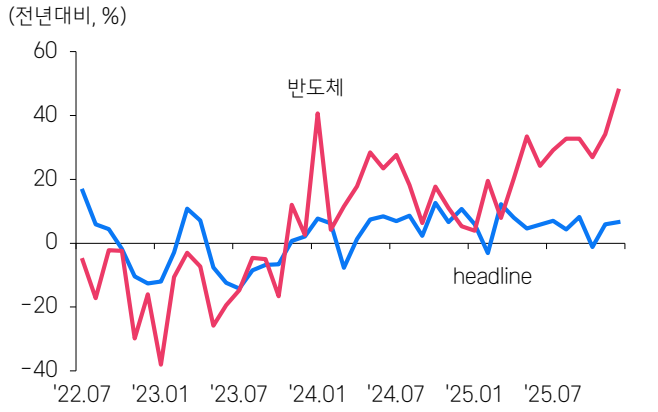
자료: U.S. Census Bureau

미국 CPI: headline vs. c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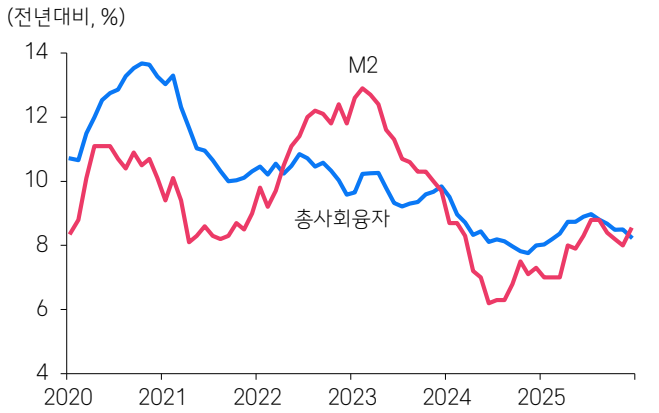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중국 수출 추이: headline vs. 반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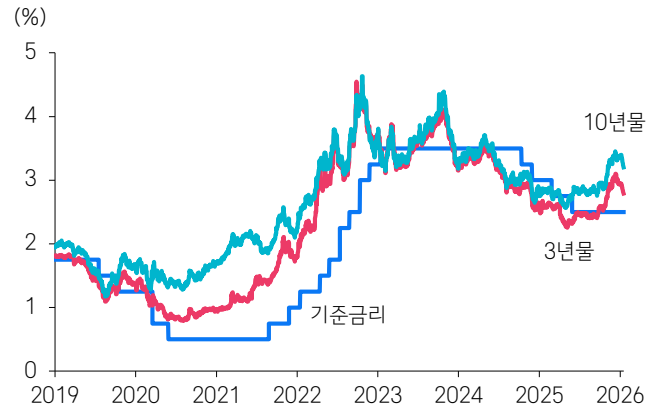
자료: 중국 해관총서

중국 총사회융자는 완만한 둔화세 유지



자료: 중국 인민은행

한국 기준 금리 동결 지속



자료: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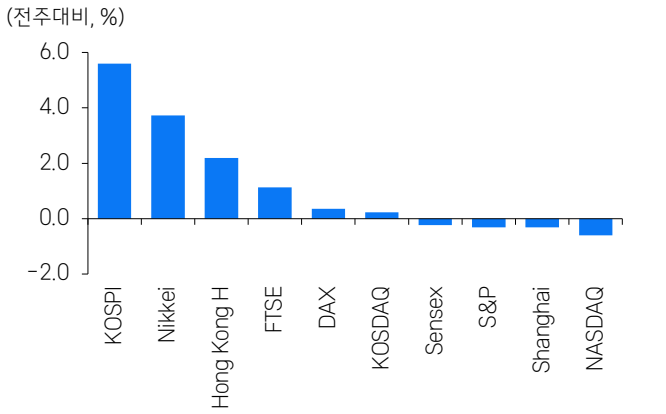
금융시장 동향 (1월 16일 13시 기준)

주식시장: 이번 주 미국 외 글로벌 주식시장은 상승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의 마찰이 부각되고, 은행주 낙폭이 부각되는 등의 이슈가 있었으나, 반도체 관련 종목 랠리가 이어지며 악재가 어느정도 상쇄되는 흐름을 보였다. 미국 S&P 500은 -0.3%, 미국 나스닥은 -0.6%를 기록했다. 유럽에서는 ASML등 반도체 업종의 랠리가 이어졌으며, Stoxx600은 +0.8%를 기록했다. 연초 이후 유럽 IT업종 주가지수는 +11.3%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한국 증시는 글로벌 증시를 크게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도체, 로봇, 금융, 방산, 조선 관련주들이 반등하며 코스피는 +5.6%, 코스닥은 +0.3%를 기록하였다.

외환시장: 이번 주 달러 인덱스는 99.1에서 99.3으로 소폭 상승했다. 주초에는 파월 의장에 대한 검찰 조사로 Fed 독립성을 향한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했으나, 이후 고용, 소매판매 등 미국 경제 지표가 양호한 결과를 보이면서 강세로 돌아섰다. 또한,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중의원 해산 및 조기 총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엔/달러 환율이 전주 대비 0.2% 상승한 점도 달러 강세 요인이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에도 1,470원을 상회하면서 전주 대비 0.9% 상승했고, 위안/달러는 0.2% 하락하며 완만한 강세를 이어갔다. 한편, 달러/유로는 전주 대비 0.2% 상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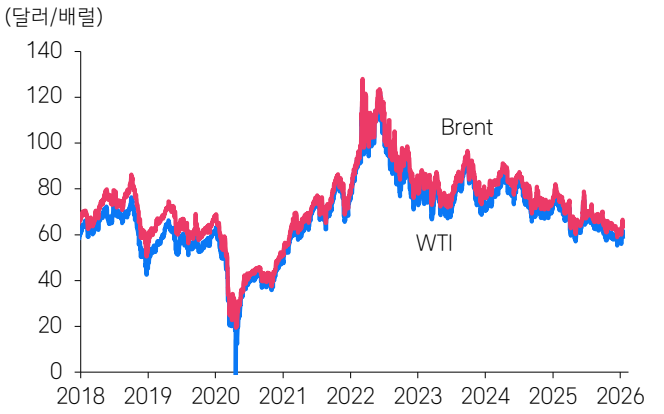
원자재: 이번 주 WTI는 $59.1에서 $59.2로, 브렌트는 $63.3에서 $63.7로 소폭 상승했다. 이란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미국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란의 공급 차질 우려가 부각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석유 인프라 공격 또한 유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다만,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석유 판매 촉진을 위해 빠른 시일 내 베네수엘라 제재를 추가 완화할 수 있다고 발언하며 유가 상승폭은 제한적이었다.

주요국 주식시장 등락



참고: 1월 16일 13시 기준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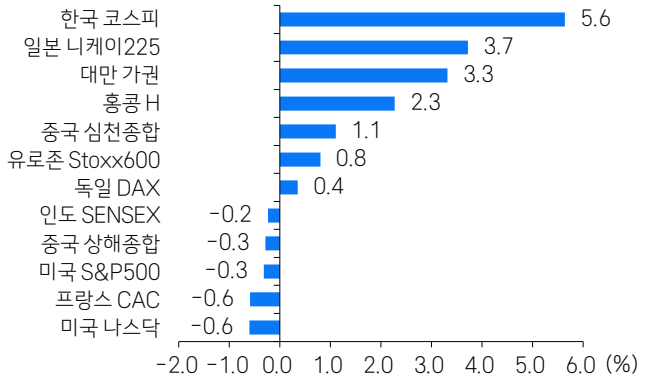
국제 유가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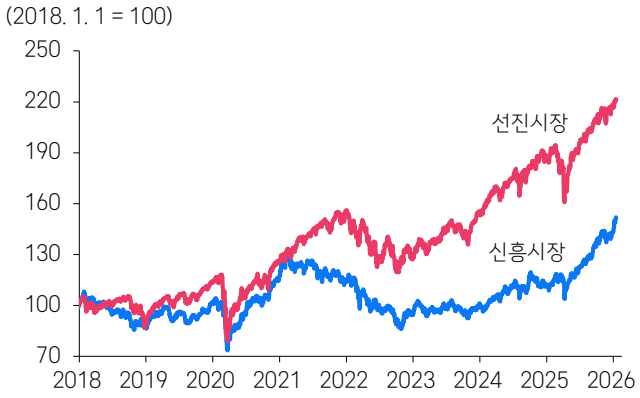
〉〉 금융시장 동향

주요국 증시 performance (전주 말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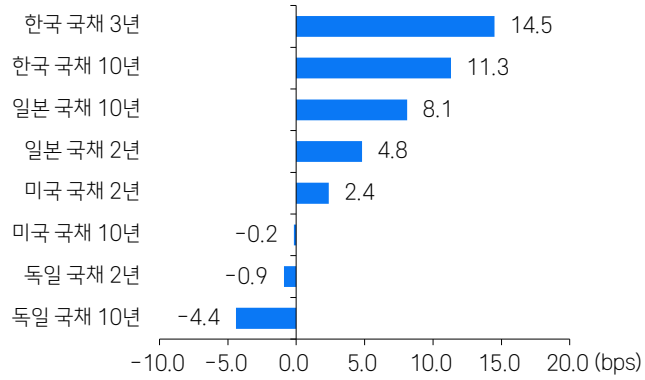
참고: 1월 16일 13시 기준
자료: Bloomberg

MSCI 선진시장 vs. 신흥시장 (Local Curr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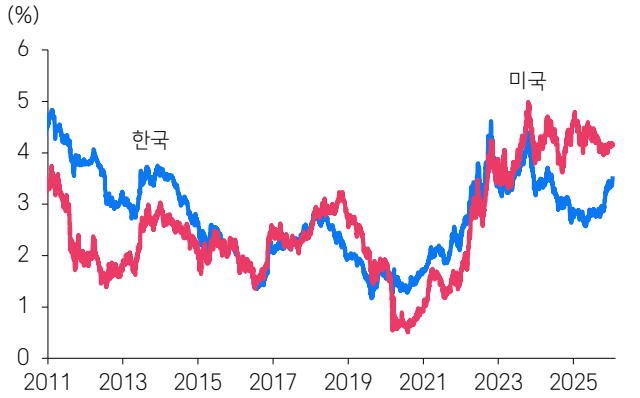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주요국 국채 수익률 변화 (전주 말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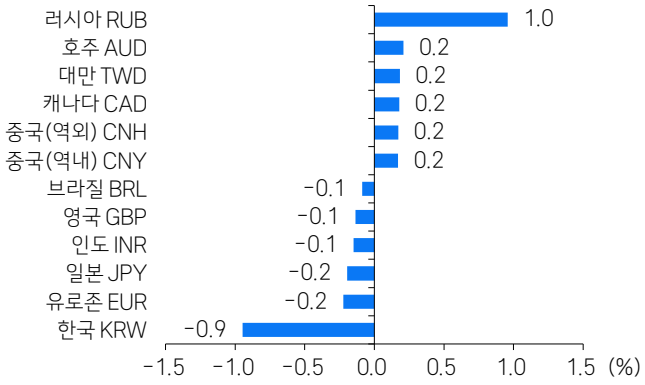
참고: 1월 16일 13시 기준
자료: Bloomberg

한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추이



자료: Bloomberg

미 달러화 대비 주요국 통화 가치 절상률 (전주 말 대비)



참고: 1월 16일 13시 기준
자료: Bloomberg

국제 유가

자료: Bloomberg

주요국 통화정책 update

국가명	정책 금리 (%)	직전 (%)	통화정책 변화일	정책 금리 변화 (bps) 3개월	1년	변화 내용
주요국						
미국	3.50~3.75	3.75~4.00	25.12.10	(50)	(75)	12월 FOMC에서 기준 금리를 3.75%로 25bps 인하. 파월 의장은 기자 회견에서 일부는 동결을, 일부는 소폭의 인하를, 일부는 보다 큰 폭의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하여, 향후 금리 인하의 성격이 연속적인 insurance cuts에서 점진적인 normalization cuts으로 전환될 것임을 시사. 또한 3개월 전 전망에 비해, 성장률 전망은 상향 조정된 반면, 물가는 하향 조정되어 전반적으로 골디락스 전망이 강화됨
유로존	2.00	2.25	25.06.05	0	(100)	ECB, 12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정책 금리를 동결. 라가르드 총재는 서비스 부문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12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2026년 성장률과 인플레이션(HICP) 전망은 각각 전년 대비 1.2%와 1.9%로 제시됨. 이는 기존 9월 전망에 서 모두 0.2%p씩 상향된 것
한국	2.50	2.75	25.05.29	0	(50)	한국은행, 1월 금통위에서 기준 금리 2.50%로 동결. 금리인하 소수의견 사라지고 통방문에서도 인하 가능성을 열어 둔다는 표현이 삭제되면서 금리인하 사이클 종료 시사.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에서는 동결과 인하 5:1으로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의견이 1명으로 크게 줄었음 (8월 5명→10월 4명→11월 3명→1월 1명)
일본	0.75	0.50	25.12.19	25	50	일본은행, 12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 금리를 25bp 인상. BOJ는 정책 결정문을 통해 이번 금리 인상의 배경으로 1) 미국의 무역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낮아졌고, 2) "26년에도 임금 상승률이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3)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이 2% 물가 목표를 향해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
영국	3.75	4.00	25.12.18	(25)	(100)	BOE, 12월 회의에서 기준 금리 3.75%로 인하. BOE는 성명서를 통해 제약적 통화정책, 경제성장 둔화, 임금 상승률 및 서비스 인플레이션의 지속적 둔화 등은 추가적인 디스인플레이션을 시사한다고 설명
중국	1.40	1.50	25.05.08	0	(10)	5월 7일, 중국 인민은행은 정책 금리와 지준율을 인하. 이에 7일 만기 역RP는 1.5%에서 1.4%로, 가중평균 지준율은 6.6%에서 6.2%로 인하되었으며, 추후 LPR도 함께 하락할 것이라 언급. 아울러, 서비스 및 양로 산업 금융 지원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으며,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지원도 확대
기타 지역						
멕시코	7.00	7.25	25.12.18	(50)	(300)	멕시코 중앙은행,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25bp 인하. 중앙은행 측은 '25년 4분기와 이후 두 분기의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26년 3분기까지 목표치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함
인도	5.25	5.50	25.12.05	(25)	(125)	인도 중앙은행,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25bp 인하. 중앙은행 측은 물가 안정과 견조한 성장이 동시에 나타난 골디락스 상황을 기준 금리 인하 배경으로 꼽았으며, 추가 완화 가능성도 열어둠
브라질	15.00	14.75	25.06.18	0	275	브라질 중앙은행, 11월 통화정책회의에도 기준 금리 동결. 중앙은행 측은 성명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발동으로 국내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 또한,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조정 사이클을 재개할 수 있다고 언급
튀르키예	38.00	39.50	25.12.11	(250)	(950)	튀르키예 중앙은행,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150bp 인하. 통화정책위원회는 11월 소비자 물가가 식품 가격의 하락으로 예상보다 낮았다며 인플레이션의 근원적인 추세가 10월, 11월에 하락했다고 설명
인도네시아	4.75	5.00	25.09.17	0	(125)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시장 예상을 벗어나 10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동결. 중앙은행 총재는 이번 결정은 불확실성 속 루피아화 안정화와 낮은 인플레이션 상승률 유지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
호주	3.60	3.85	25.08.12	0	(75)	호주 중앙은행, 1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3.60%로 동결. 중앙은행 측은 물가 상승률의 분명한 완화를 확인 후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며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 더불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9월 호주 CPI의 급등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3% 수준을 초과하는 3.2%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
스웨덴	1.75	2.00	25.10.01	0	(75)	스웨덴 중앙은행, 1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동결. 중앙은행 측은 경제 성장과 경기 전망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이유가 없으며,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스위스	0.00	0.25	25.06.19	0	(50)	스위스 중앙은행,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동결. 중앙은행 측은 자국 경제의 상당 부분이 미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데 그친다며, 미국 무역정책이 스위스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 한편,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총재는 많은 경제 주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중앙은행 책무 이행에 정말 필요하다면 준비가 되어있다고 덧붙임
러시아	16.00	16.50	25.12.19	(100)	(500)	러시아 중앙은행, 12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50bp 인하 단행. 중앙은행 측은 러시아 경제가 균형 성장 궤도로 복귀하고 있으나, 물가 상승률을 목표치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긴축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
뉴질랜드	2.25	2.50	25.11.26	(25)	(200)	뉴질랜드 중앙은행, 1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25bp 인하. 중앙은행 측은 성명서를 통해 경제 내 여력이 확대되고 물가 상승세가 완화되면서 경기 회복을 지원할 여지가 생겼다고 언급
캐나다	2.25	2.50	25.10.29	(25)	(100)	캐나다 중앙은행, 10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 금리 2.25%로 25bp 인하. 기자회견에서 총재는 관세가 자국 경제를 약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 목표치인 2%에 가깝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

주요 금융시장 동향 (1/2)

	1월 9일	1월 12일	1월 13일	1월 14일	1월 15일	1월 16일	변화율 (%, bps)							
							1 week	1 month	3 months	6 months	12 months	24 months	36 months	YTD
주식시장 (지수)														
KOSPI	4,586	4,625	4,693	4,723	4,798	4,845	5.6	21.2	29.3	52.1	91.7	94.0	101.9	15.0
미국 S&P 500	6,966	6,977	6,964	6,927	6,944	6,944	(0.3)	2.1	4.8	10.9	17.0	45.7	73.7	1.4
일본 NIKKEI 225	51,940	51,940	53,549	54,341	54,111	53,875	3.7	9.1	11.6	35.8	39.7	51.3	108.6	7.0
영국 FTSE	10,125	10,141	10,137	10,184	10,239	10,239	1.1	5.7	8.5	14.7	22.0	35.5	30.3	3.1
독일 DAX	25,262	25,405	25,421	25,286	25,352	25,352	0.4	5.3	4.5	5.6	22.7	53.0	67.5	3.5
중국 상해종합	4,120	4,165	4,139	4,126	4,113	4,109	(0.3)	7.4	4.9	17.3	27.0	42.0	27.3	3.5
홍콩 H	9,049	9,220	9,285	9,316	9,267	9,255	2.3	5.7	(0.1)	4.4	30.4	73.2	25.9	3.8
인도 Sensex	83,576	83,878	83,628	83,383	83,383	83,383	(0.2)	(1.5)	(0.1)	0.9	8.2	14.0	38.8	(2.1)
인도네시아 JCI	8,937	8,885	8,948	9,033	9,075	9,075	1.6	4.5	11.7	26.2	27.7	25.3	35.7	5.0
브라질 iBovespa	163,370	163,150	161,973	165,146	165,568	165,568	1.3	4.4	16.4	22.2	36.6	28.1	51.6	2.8
MSCI World (USD)	4,511	4,522	4,519	4,509	4,518	4,518	0.2	2.9	5.3	12.0	20.6	43.6	65.1	2.0
MSCI EM (USD)	1,452	1,466	1,472	1,479	1,478	1,478	1.8	9.3	7.2	19.3	38.6	50.9	43.4	5.2
채권 금리 (%)														
한국 국채 3년	2.94	2.98	3.00	3.00	3.09	3.09	15	8	51	63	46	(15)	(36)	13
한국 국채 10년	3.39	3.40	3.42	3.42	3.50	3.50	11	19	58	63	69	19	13	12
미국 국채 2년	3.53	3.53	3.53	3.51	3.56	3.56	2	7	13	(34)	(67)	(66)	(68)	8
미국 국채 10년	4.17	4.18	4.18	4.13	4.17	4.16	(0)	2	19	(29)	(45)	11	66	(0)
일본 국채 10년	2.10	2.10	2.17	2.19	2.16	2.18	8	22	51	59	97	158	165	11
독일 국채 10년	2.86	2.84	2.85	2.81	2.82	2.82	(4)	(3)	25	13	27	56	64	(4)
중국 국채 10년	1.87	1.86	1.86	1.85	1.85	1.84	(3)	(1)	(0)	18	19	(69)	(108)	(2)
인도 국채 10년	6.64	6.61	6.63	6.65	6.65	6.65	1	8	15	34	(10)	(50)	(68)	7
인도네시아 국채 10년	6.13	6.18	6.20	6.24	6.25	6.25	12	7	29	(32)	(93)	(42)	(51)	18
브라질 국채 10년	13.69	13.65	13.68	13.78	13.83	13.83	13	13	(12)	(37)	(113)	312	115	9
JPM EMBI Global	230.2	230.6	231.7	234.7	229.3	229.3	(1)	(4)	(35)	(56)	(67)	(101)	(150)	(2)
장단기 금리 차 (%)														
미국 국채 10년-2년	0.63	0.64	0.65	0.62	0.61	0.61	(3)	(5)	6	4	23	77	134	(9)
일본 국채 10년-2년	0.94	0.94	1.01	1.01	0.98	0.98	3	9	24	18	46	39	49	9
독일 국채 10년-2년	0.76	0.75	0.76	0.74	0.72	0.72	(3)	1	6	(11)	40	106	111	(1)
중국 국채 10년-2년	0.41	0.40	0.39	0.38	0.40	0.40	(2)	(4)	10	14	4	18	1	(5)
한국 국채 10년-3년	0.45	0.42	0.42	0.43	0.42	0.42	(3)	10	8	(0)	23	33	49	(2)

(다음 페이지에 계속)

주요 금융시장 동향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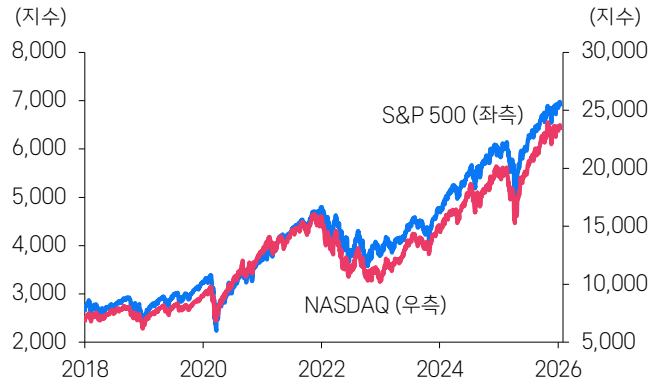
	1월 9일	1월 12일	1월 13일	1월 14일	1월 15일	1월 16일	변화율 (%, bps)							
							1 week	1 month	3 months	6 months	12 months	24 months	36 months	YTD
CDS Premium (bps)														
미국 (5년)	29.0	29.0	29.0	29.0	29.0	29.0	(0)	(1)	(12)	(10)	(7)	(17)	(3)	(1)
일본 (5년)	14.8	14.8	14.8	14.8	14.8	14.8	0	(1)	3	2	3	1	(2)	0
독일 (5년)	21.0	21.0	20.8	20.8	20.8	20.8	(0)	(1)	(3)	(5)	(17)	(7)	(23)	(1)
중국 (5년)	3.5	3.5	3.5	3.5	3.5	3.5	0	(1)	(3)	(2)	(4)	(7)	(11)	0
한국 (5년)	41.5	41.5	41.5	43.4	43.4	43.4	2	0	0	(4)	(13)	(21)	(11)	(0)
인도네시아 (5년)	71.1	71.1	71.8	72.0	72.0	72.0	1	1	(10)	(4)	(5)	(3)	(16)	4
브라질 (5년)	137.3	137.0	137.7	138.3	139.1	139.1	2	4	(6)	(11)	(48)	9	(100)	1
러시아 (5년)	12,940.3	12,940.3	12,940.3	12,940.3	12,940.3	12,940.3	0	0	0	0	0	0	0	0
상품 가격														
CRB 지수	301.5	304.0	306.6	306.8	301.8	301.8	0.1	3.4	2.7	(0.5)	(3.1)	14.2	9.4	1.0
WTI (달러/배럴)	59.1	59.5	61.2	62.0	59.2	59.2	0.1	7.0	2.9	(10.9)	(24.8)	(18.3)	(25.9)	3.0
두바이유 (달러/배럴)	61.0	61.2	61.8	62.6	61.3	61.3	0.4	0.5	(2.8)	(12.4)	(24.1)	(21.1)	(23.4)	(1.2)
LME 구리 (달러/톤)	12,998	13,210	13,164	13,189	13,106	13,106	0.8	13.1	23.1	36.0	42.0	56.9	44.0	5.5
금 (달러/oz)	4,510	4,598	4,587	4,627	4,616	4,598	2.0	6.9	6.3	37.4	69.4	126.7	140.0	6.5
은 (달러/oz)	79.86	85.10	86.95	93.16	92.42	90.74	13.6	42.3	67.3	139.3	194.5	295.9	274.1	26.6
옥수수 (센트/부셸)	445.8	421.5	419.8	422.0	420.3	420.3	(5.7)	(3.7)	(0.4)	3.7	(11.4)	(5.2)	(37.7)	(4.5)
소맥 (센트/부셸)	517.3	511.3	510.5	512.5	510.5	510.8	(1.3)	0.2	1.6	(5.6)	(5.0)	(12.2)	(31.3)	0.7
달러화 대비 환율														
한국 원화	1,459	1,468	1,476	1,464	1,469	1,473	(0.9)	(0.0)	(3.8)	(5.7)	(1.0)	(9.6)	(16.1)	(2.3)
일본 엔화	157.89	158.14	159.14	158.46	158.63	158.20	(0.2)	(2.2)	(4.9)	(6.5)	(1.9)	(7.0)	(18.7)	(0.9)
유로화	1.164	1.167	1.164	1.164	1.161	1.161	(0.2)	(1.2)	(0.7)	(0.3)	12.7	6.8	7.3	(1.1)
중국 위안화 (역내)	6.978	6.973	6.978	6.973	6.967	6.966	0.2	1.1	2.3	3.0	5.2	3.2	(3.3)	0.3
중국 위안화 (역외)	6.976	6.968	6.974	6.970	6.963	6.964	0.2	1.0	2.3	3.1	5.5	3.7	(3.2)	0.2
인도 루피화	90.17	90.17	90.19	90.30	90.30	90.30	(0.1)	0.8	(2.7)	(4.8)	(4.2)	(8.0)	(9.6)	(0.4)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16,805	16,833	16,865	16,860	16,885	16,885	(0.5)	(1.1)	(1.8)	(3.6)	(3.1)	(7.7)	(10.9)	(1.2)
브라질 헤알화	5.366	5.375	5.374	5.393	5.371	5.371	(0.1)	1.8	1.4	3.7	12.7	(8.3)	(4.1)	1.9
달러 인덱스	99.13	98.86	99.13	99.06	99.32	99.32	0.2	1.2	1.0	0.9	(8.8)	(3.9)	(2.8)	1.0
아시아 달러 인덱스	92.0	92.0	91.9	92.0	92.0	92.0	(0.1)	0.6	0.1	(0.4)	3.3	0.3	(4.8)	(0.2)
JPM 이머징 통화 지수	46.66	46.77	46.78	46.77	46.85	46.85	0.4	1.2	1.9	2.2	9.3	(1.1)	(8.2)	0.6

참고: 1월 16일 13시 기준
자료: Bloomberg, Refinitiv

주요 금융시장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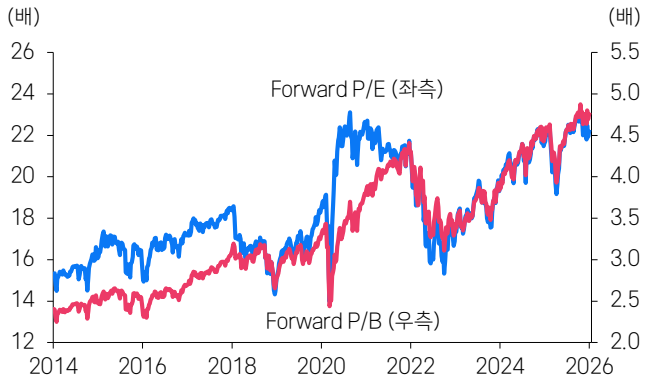
》 미국

S&P 500과 NASDAQ 명목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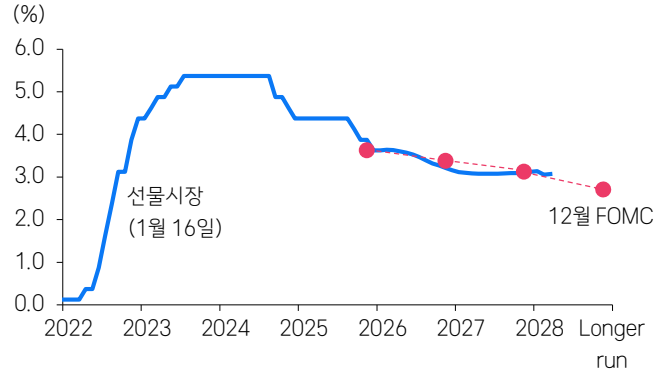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S&P 500: Forward P/E와 P/B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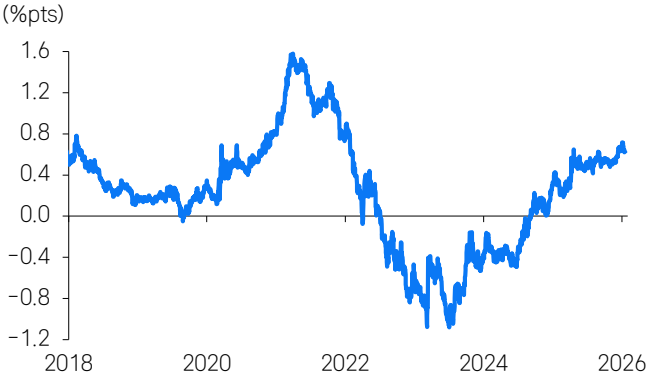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연방기금금리 선물에 반영된 기준 금리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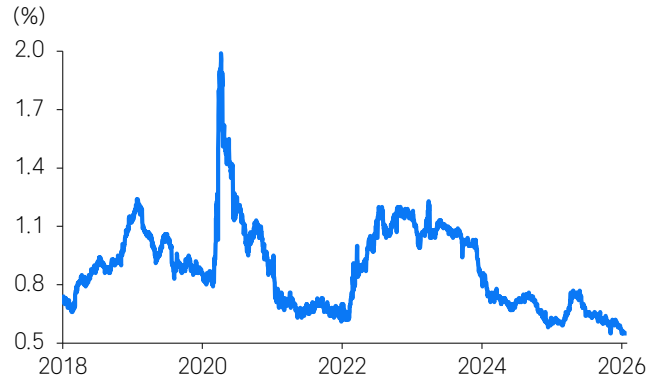
참고: 발표된 기준 금리는 목표 범위의 중간값 기입
자료: Bloomberg

장단기 금리 차 추이 (10년물-2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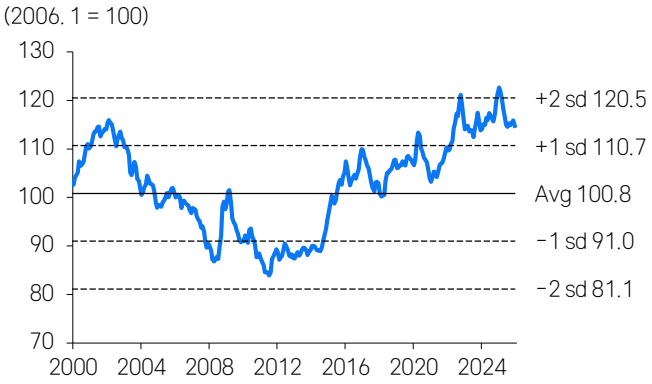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회사채 Baa - Aaa 스프레드 추이



자료: Moody's,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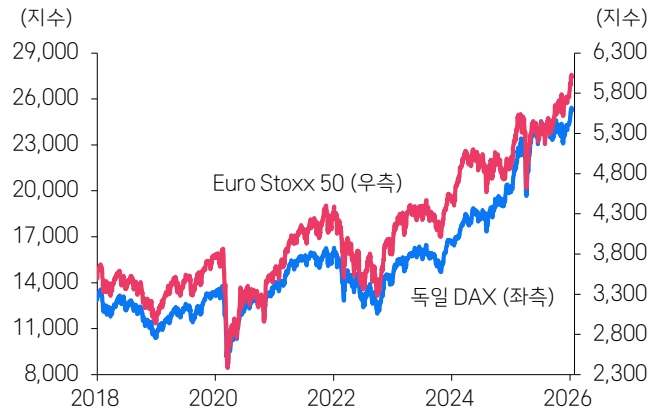
Fed 달러 지수 추이



자료: Federal Reserve,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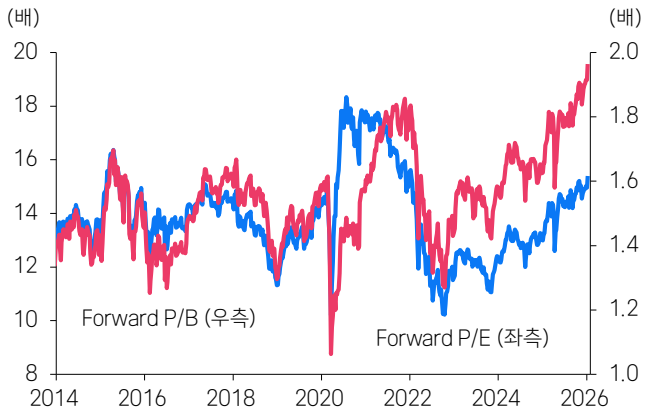
〉〉 유럽

독일 DAX 지수와 Euro Stoxx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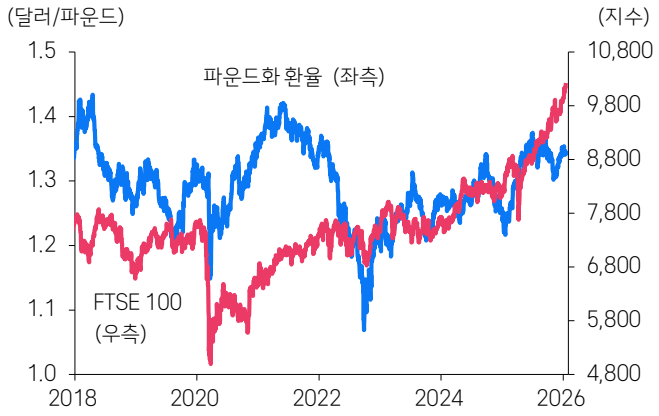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MSCI EMU 12개월 forward P/E와 P/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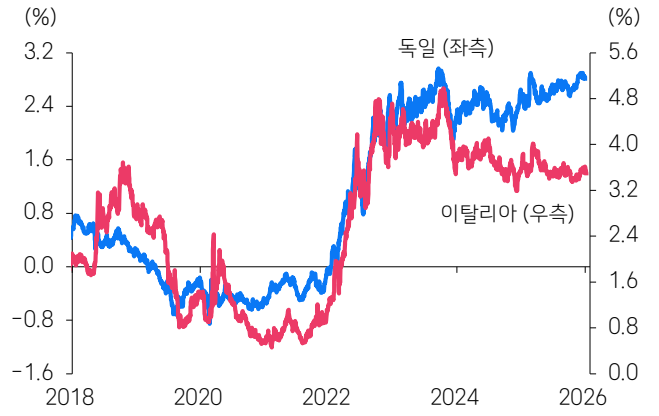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영국 FTSE100과 파운드화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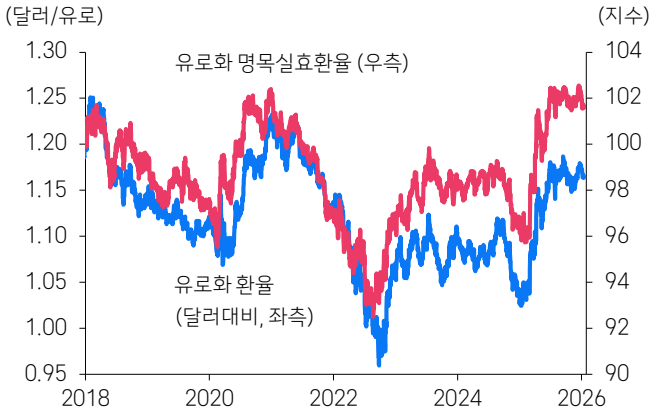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독일, 이탈리아 국채 10년물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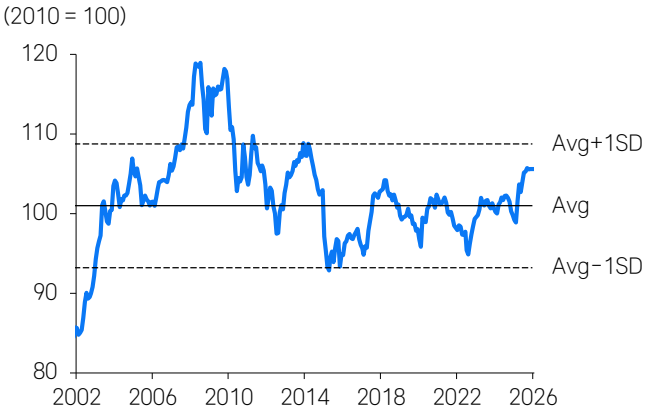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로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유로화 실질 실효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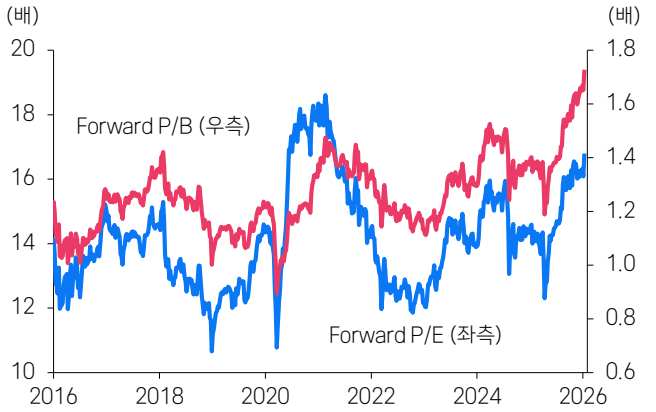
자료: BIS

〉〉 일본

일본 NIKKEI225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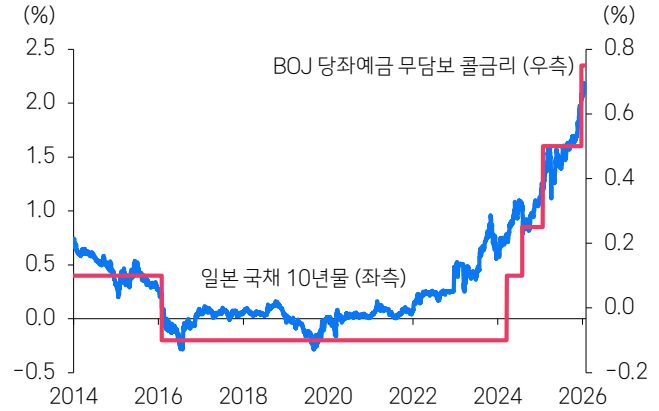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MSCI Japan: Forward P/E와 P/B 추이



자료: Refinitiv

BOJ 정책 금리, 일본 국채 10년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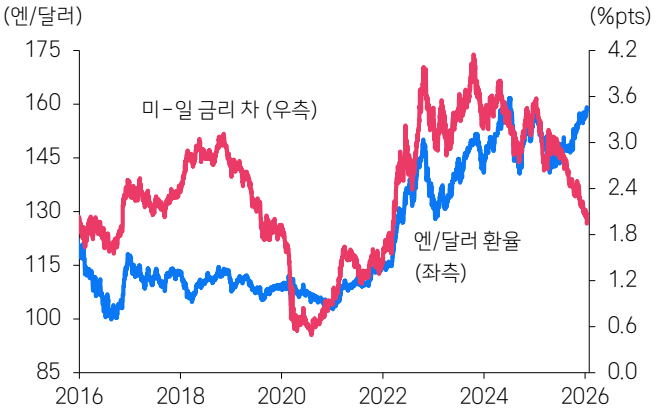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장단기 금리 차 추이 (일본 국채 10년물-2년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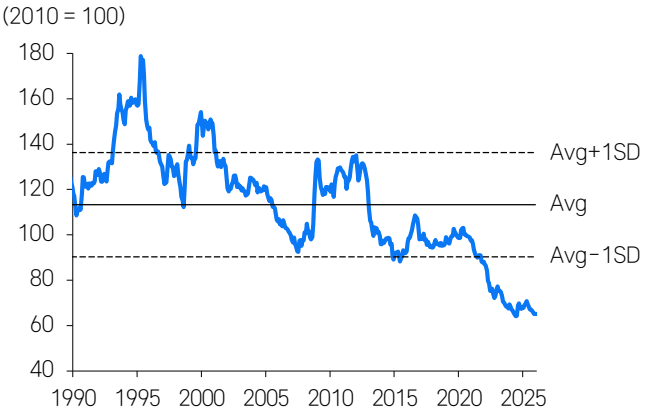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일 금리 차와 엔/달러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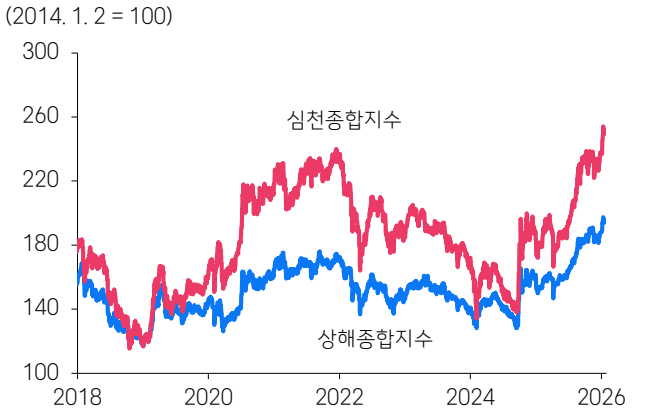
엔화 실질 실효 환율



자료: BIS, 삼성증권 추정

〉〉 중국

중국 상해 및 심천종합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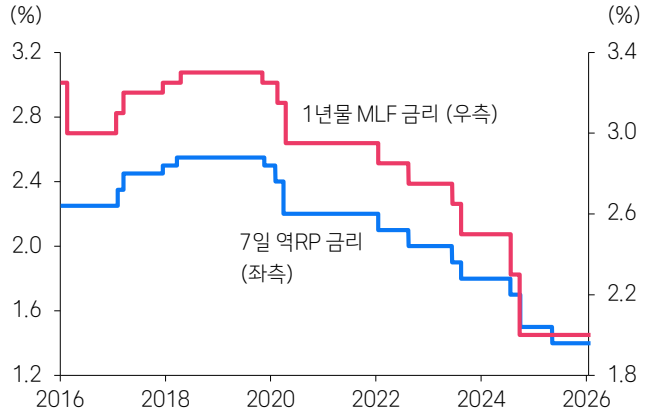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상해종합 지수 Forward P/E Valuation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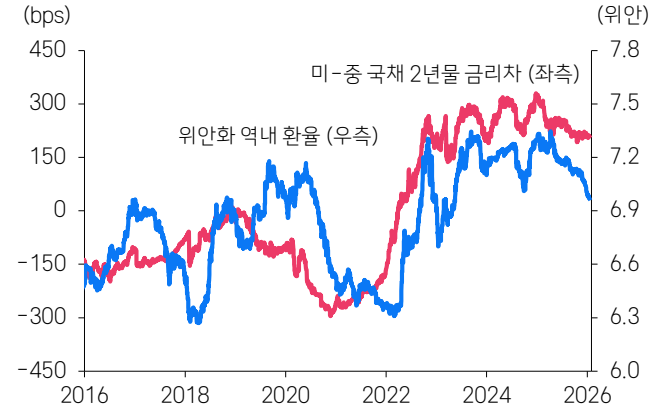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1년물 MLF 금리와 7일물 역RP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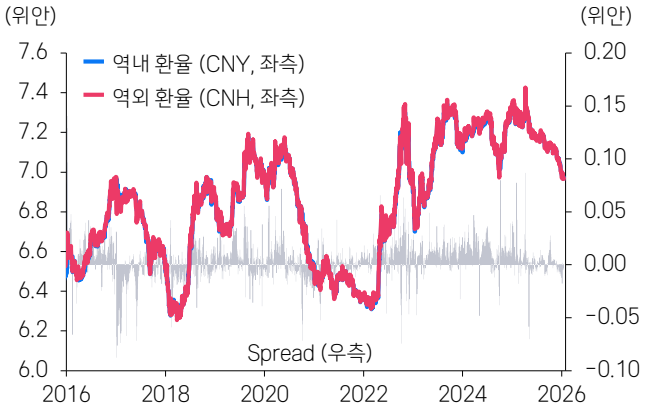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중 금리 차와 위안화 역내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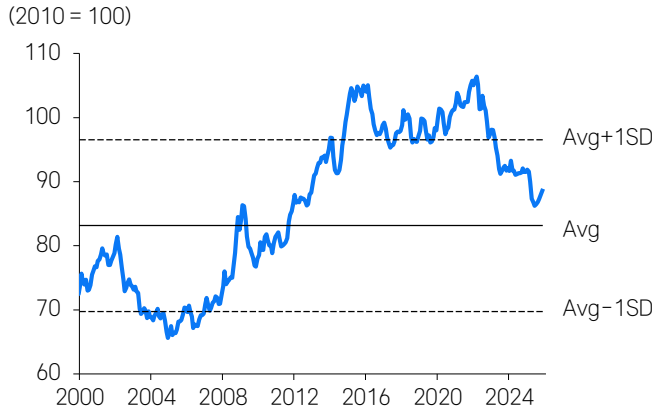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위안화 환율 추이: 역내(CNY) vs. 역외(CNH)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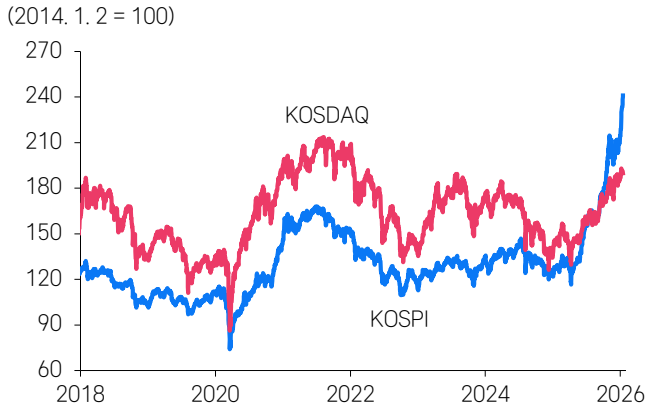
위안화 실질 실효 환율 추이



자료: BIS, 삼성증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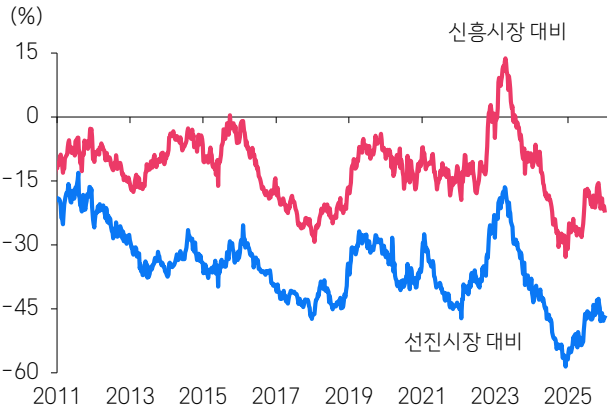
〉〉 한국

한국 KOSPI와 KOSDAQ 추이



자료: Bloomberg

KOSPI Forward P/E 밸류에이션 할증/할인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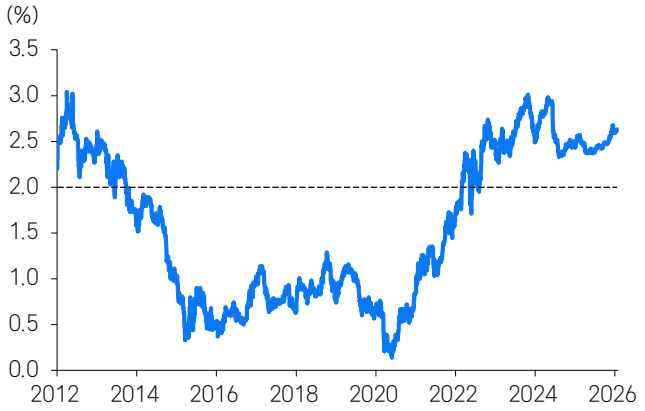


자료: Refinitiv

장단기 금리 차 (국고 10년-국고 3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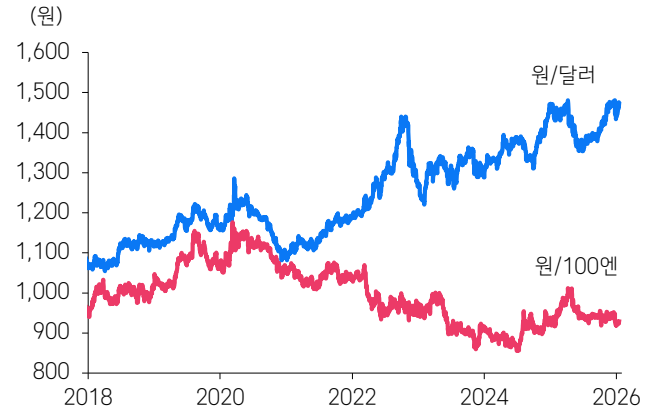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10년 BE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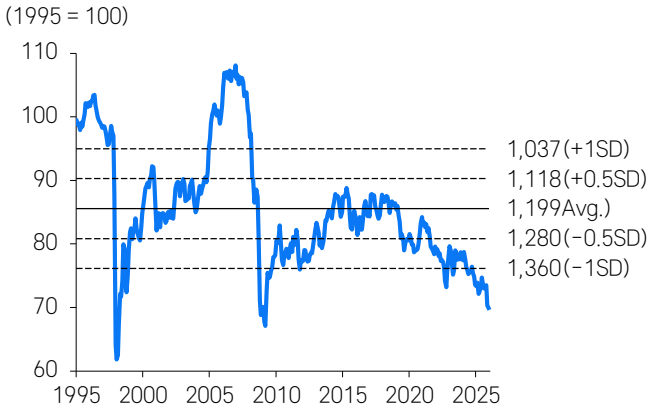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원/달러와 원/100엔 환율



자료: Bloomberg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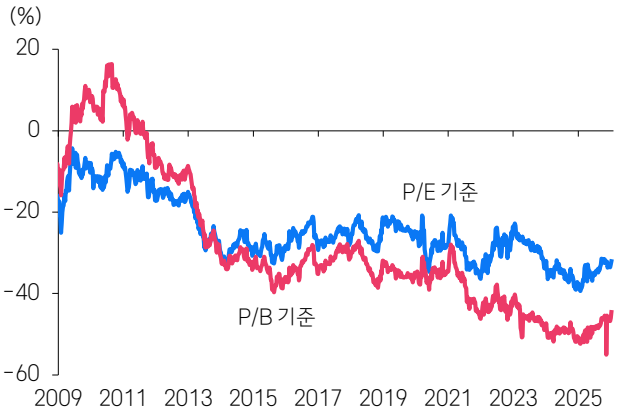
자료: 삼성증권

〉〉 신흥국

선진시장 대비 신흥시장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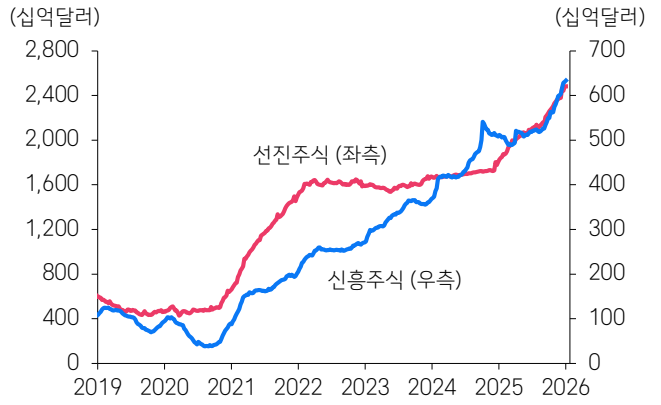
참고: MSCI USD 지수 기준
자료: Refinitiv

선진시장 대비 신흥시장 할증/할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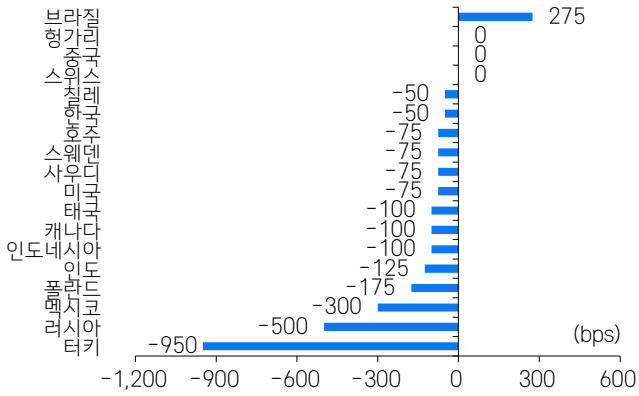
참고: 12개월 forward P/E 및 P/B. MSCI 선진국 및 신흥국 지수 기준
자료: Refinitiv

선진/신흥 시장 주식형 펀드 누적 Fund Flow



자료: EPFR, 삼성증권

주요국 정책 금리 변화 (12개월 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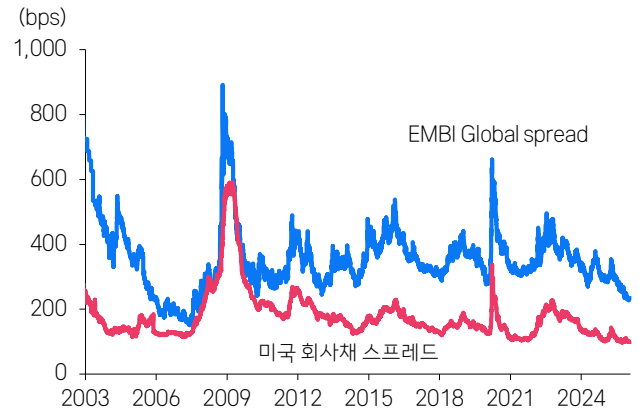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JPMorgan Emerging Currency Index

자료: JPMorgan,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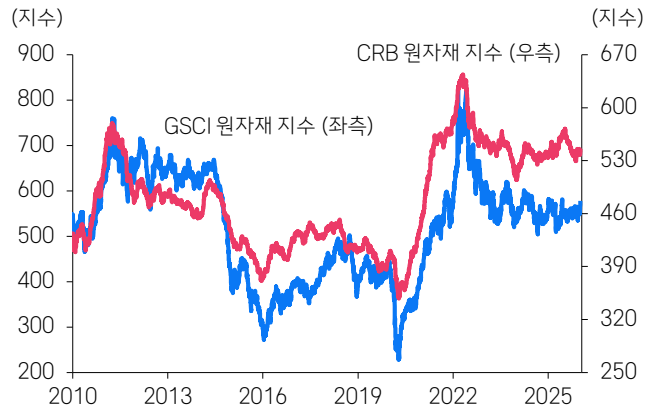
EMBI Spread와 미국 회사채(BBB) 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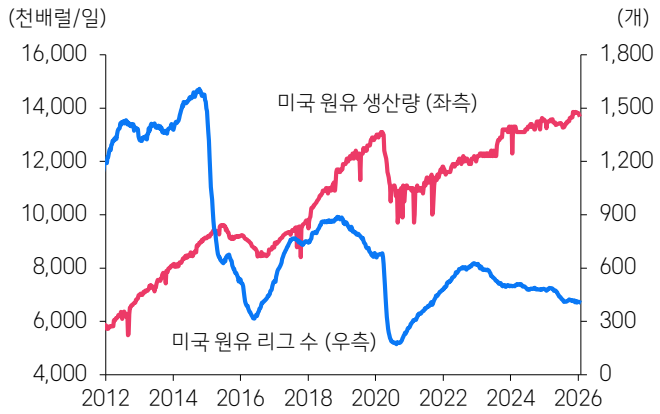
〉〉 주요 원자재

GSCI Commodity Index / CRB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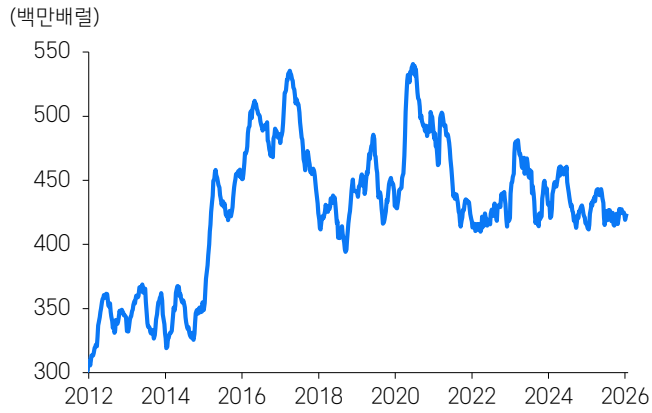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국 원유 리그 수와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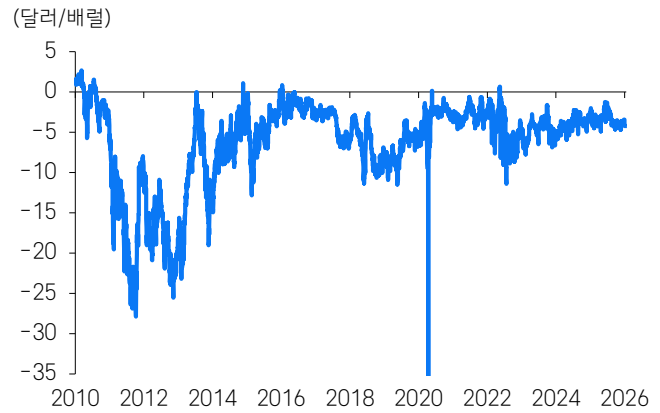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Baker Hughes

미국 원유 재고량



자료: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WTI/Brent 유가 spread



자료: Bloomberg

구리 및 철광석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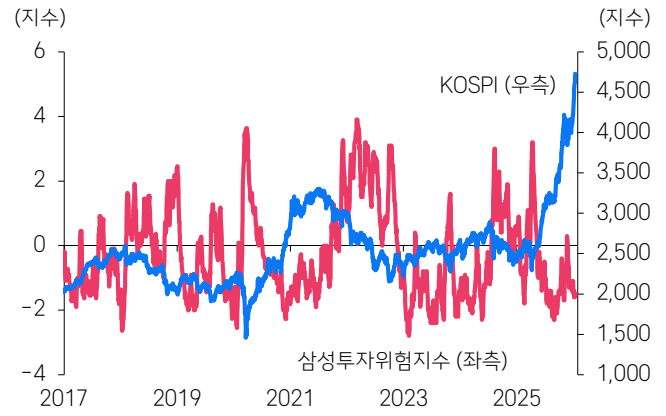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금/은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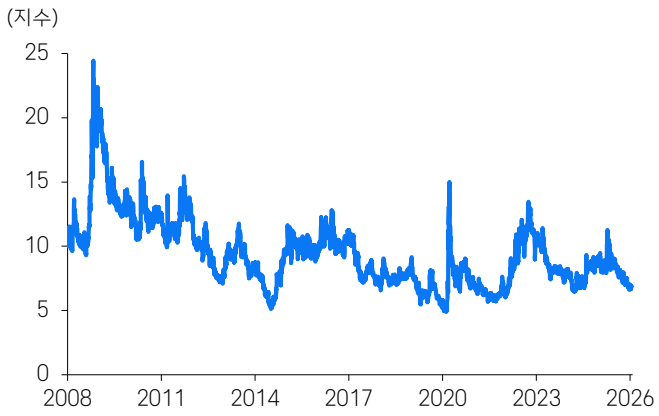
〉〉 변동성 지표와 CDS Premium

삼성 투자위험 지수(Samsung Risk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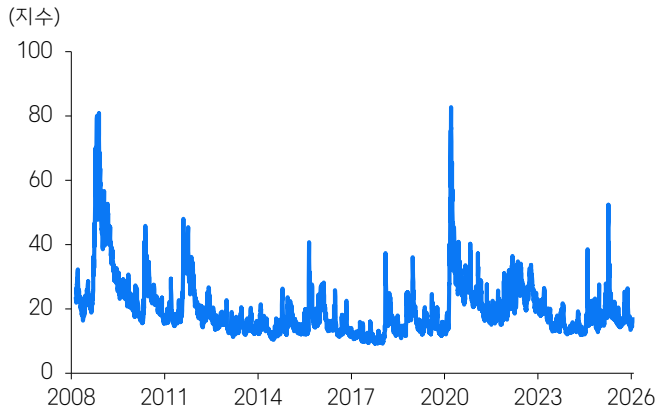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Bloomberg, 삼성증권

FX Volatility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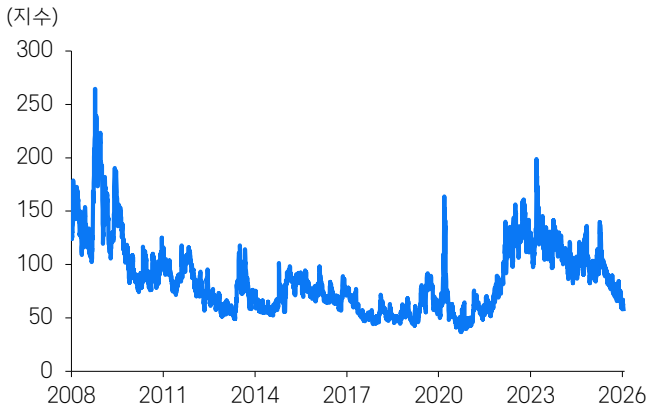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VIX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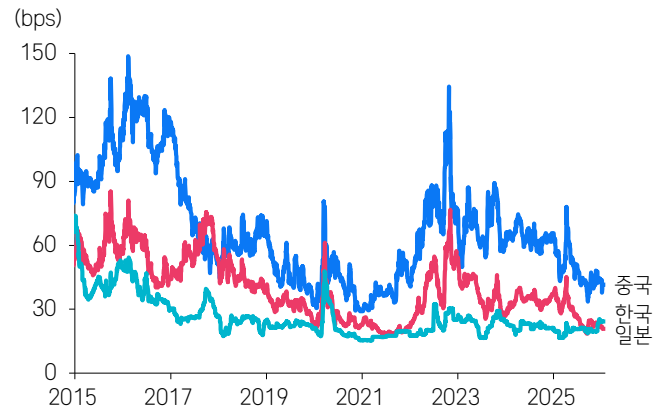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Move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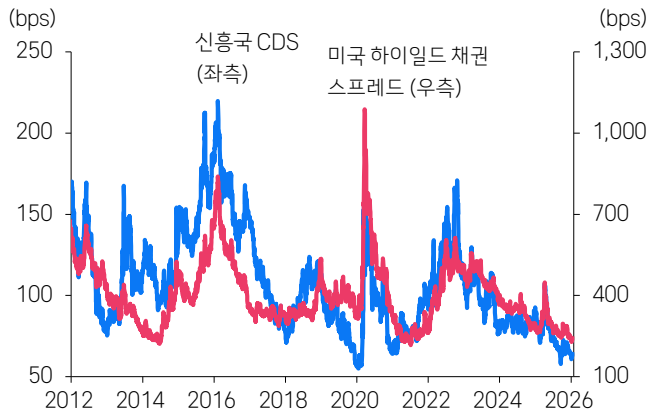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 중국, 일본 CDS premium



참고: 5년물 기준
자료: Refinitiv

신흥국 CDS와 미국 하이일드 채권 스프레드



참고: S&P Global EM CDX 구성국 중 베네수엘라와 우크라이나 제외, 각국 CDS를 명목 GDP로 가중 평균하였음. 2022년 3월부터 러시아 제외
자료: Refinitiv, Bloomberg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